

# 전공노 중앙위, 광산구 지부장 제명 놓고 '시끌'

### 조합원 선출 A씨 직무정지 결정...광주지역본부서 실질 업무 관장 "조직원 의사 결정 무시 보복성 징계" 반발...법원 가처분 신청 계획

전공공무원노조(전공노)가 최근 조합원 투표로 당선된 광산구 지부장을 제명하고 사고지부로 지정한 것을 놓고 해당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1126명의 조합원을 둔 전공노 광산구지부가 지난 12일 지부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

직전 지부장을 맡았던 A씨가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출마했으며, 전공노 중앙위 상근직을 역임한 후 지난 2월 복직된 B씨가 출사표를 던져 양자구도

로 치러졌다.

하지만 이날 투표에 후보자들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 다득표를 얻은 A씨를 상대로 지난 15일 재차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793명이 참여한 가운데 A씨가 502표(63.3)의 찬성표를 얻어 지부장에 연임됐다.

하지만 전공노 측은 A씨가 연임되자 지난 18일 A씨에 대한 임시 직무정지를 통보한 후 전공노 중앙위원회를 열어 19일자로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광산구지부를 사고지부로 지정

하고 광주지역본부서 실질적인 광산구지부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광산구지부 조합원들은 "A씨가 상급노조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보복성 징계를 한 것으로 광산구지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경우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지부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조합원들을 상대로 민노총 탈퇴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4·15총선에서는 상급노조인 전공노 광주지역본부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수진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산구지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직의 질서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

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본부장은 "A씨가 전임 지부장 시절 조직 내 성폭행을 저질렀고 조합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반 조직 행위를 한 것이 큰 제명 사유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수년전 사건을 확대하여 자신을 모략한 것이다"며 "뻔한 결과이지만 조합에 재심을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광산구지부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부터 상급노조인 지역본부측 관계자들이 지부 정상화를 위한 명분으로 광산구청 노동조합사무실에 파견돼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골목상권 홍보 '크리에이터' 뽑습니다

광산구가 다음달 12일까지 '생생(生生) 골목통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생생 골목통 크리에이터는 개성 있는 영상으로 광산구 골목상권 구축구역을 홍보하게 된다.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과 디지털 세대로 불리는 소위 'Z세대'의 소비 경향을 반영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취지다.

크리에이터는 광산구 골목상권 곳곳을 취재·소개하고, 생생한 이용후기를 색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홍보 영상 콘텐츠 2편을 제작하게 된다.

광산구는 이 콘텐츠로 대대적인 골목상권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기아 재능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참여해 창의적인 콘텐츠로 광산구 골목상권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김삼호 광산구청장 공약이행 최고 등급 'SA' 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19년 공약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로 나눠 평가를 실시했다.

김 청장은 4대 분야 59개 공약사업을 73% 이행률을 달성해 이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및 운영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산구 글로벌 마케팅 준비 ▲시민과 함께하는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약사항 보고회를 수시로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에는 공약 의견 수렴제도인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것도 호평을 얻었다.

김 청장은 "공약은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구정목표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실현해 나가는 핵심이다"라며 "올해도 시민에게 약속 드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수완동 주민 "차타고 민원서류 발급 받아요"

###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 오픈



광주 광산구가 최근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 차량을 타고 서류 발급 등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완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를 개소했다.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는 지난 2015년 첨단 2동에 이어 광산구에 두 번째로 문을 연 승차민원실이다. 민원인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승차민원실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3~5분이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방문 민원 대기 주차에서 서류 발급까지 최대 21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와 인구 밀집지역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차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토지대장 등 23종의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대학 민원 등 팩스 신청 민원을 포함해 총 108종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의 일일 평균 민원 발급건

수는 약 700여건 이상이다.

광산구는 이 가운데 15~20%에 해당하는 100여건을 승차민원실에서 분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을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교통 약자나 바쁜 시민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노력을 꾸준히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 점검

### 5월부터 계약업무 처리·정비사업비 적정 여부 등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부터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아 ▲동구 학동4 재개발 ▲서구 광천동 재개발 ▲남구 주월장미 재건축 ▲북구 임동 재개발구역 등 4곳을 선정했다.

실태점검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변호사, 회계사,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투입된

다.

주요 점검내용은 추진위원회·조합의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용역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 처리, 정비사업비 적정 여부, 정보공개 적법성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방법은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관련 자료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고, 7월부터 8월까지 합동점검반이 사전점검을 하게 된다. 이어 9월부터 조합

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 결과 총회의결 없이 용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외위원회 위임한 사항, 예산수립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사항 등 156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수사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이번 점검이 방만한 조합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부담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버스·택시운수 종사자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광주시,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광주시는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사업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광역시장이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명령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광주시는 운수종사자가 개선명령을 준수하도록 버스·택시 주요거점 정류소와 회차지 등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운송사업자가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인 기간 동안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지·과태료 등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